



2021년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및 공동예배 자료집

[2021년 11월 1일—11월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목 차

◇ 발간사 / 더 이상 물리설 수 없는 문제 / 이철 감독회장	2
◇ 기도회 자료 1 / 미혹을 물리치라 / 황건구 목사	3
◇ 기도회 자료 2 /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 박재홍 목사	5
◇ 기도회 자료 3 / 벤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 김종구 목사 ...	7
◇ 기도회 자료 4 /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 이인구목사	9
◇ 기도회 자료 5 / 이단 분별 주요 3교리 / 김현식 목사	11
◇ 기도회 자료 6 /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분별하자 / 한철희목사	13
◇ 기도회 자료 7 / 하나님이 세우신 왕 / 이성민 교수	15
◇ 공동예배문	17
◇ 공동설교문 / 진리의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감리교회 / 이후정 총장	19
◇ 이단 자료 1 / 이단 대응 매뉴얼 / 김현식 목사	21
◇ 이단 자료 2 / 신천지의 접근 방법 / 이진우 장로	23

발간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경험하며 그 폐해의 심각성은 교회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였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되어 기독교의 대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되고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이단문제 때문에 교회는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반(反) 기독교 메시지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독교신앙을 향해 도전해 옵니다. 과학, 예술, 문학 등을 동반함으로써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가옵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최소한 먹는 것에 관한 한 궁색함은 없어졌으나, 영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풍요에 비해 영혼의 갈증을 호소합니다. 명상, 요가, 기수련, 마음 수행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신비주의, 심령술, 마음 에너지, 초자연 현상, 채식주의 등은 거의 종교적이라 할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잘못된 이단을 근절하고, 비뚤어진 영성을 바로 진단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무성함 속에 감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전례 없던 칠년 풍년기간 동안, 그 이후에 찾아올 칠년간의 대기근을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전통에 서서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 힘쓰면서 이를 통해 사회의 개혁과 성화에도 관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영국사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운동으로 불렸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정통교회입니다. 이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모범과 표준을 제시하는 교회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단경계주간을 맞이하여 매년 발행되는 이단대책자료집이 이단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적상태를 돌아보고 영적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총회 이단대책분과위원회 황건구 위원장과 위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

감독회장 이 철

미혹(迷惑)을 물리치라!

창세기 3:1-10

■ 찬송: 348장(마귀들과 싸울지라)

어느 날 정신병자(insane person)들이 모여 있는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는 예수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어디선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적이 없다! 하더랍니다. 즉 정신병원에는 자칭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자칭 재림주를 자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사이비와 이단을 비판하며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이비 이단에게 비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세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회적으로 끝이 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된 삶(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죄(불순종)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미혹을 받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사단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8:44)로서 우리들의 아버지, 창조주이신 여호와(삼위일체 하나님)를 대적합니다. 에덴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던 하와에게 찾아와 교활한(그럴듯한) 질문을 합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1절) 그리고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4절) 합니다. 적당하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하와가 어쭙잖게 대답을 하자 강력하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다고 죽는 것 아니야! 마음 놓고 따 먹어도 돼!’ 거짓에는 거짓만의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보다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고 넘어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거짓말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자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거짓된 확신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들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릅니다. 기

존 신앙에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그게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주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잘못되고 거짓된 확신이지만 말입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은 뱀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진짜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17절에서 ‘에덴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와가 생각해 보니 뱀의 말이 더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 말이 더 논리적이고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뱀의 말처럼 이렇게 좋은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고 만 것입니다.

때론 가짜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훨씬 더 감미롭습니다. 더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맨 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신선하고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 달콤합니다. 더 그럴 듯 해보입니다. 그래서 이단인줄 알면서도 그리로 갑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은 우리를 속아매는 몇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사상이 더 깊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더 ‘과학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니까 뭔가 지성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적 지식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성공한 마귀는 예수님까지 미혹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한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유혹의 결과는 비참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의 골고다 언덕길 같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승리의 길이요 부활과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범죄자로 만든 그 마귀는 오늘도 구원 받은 우리(성도)를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자리로 끌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 기도 :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마귀(사이비와 이단)를 향해 우리 주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대적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 황건구 목사(충북연회 대소교회 / 이단대책분과 위원장)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도행전 4 : 12

며칠 전, 우리 교회 인근에 사시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던 박00 씨의 부음을 전해 듣는 순간, 제 머리 속에 순간적으로 3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안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보다 먼저 가슴을 후벼 찢었습니다. 그 분은 교회 근처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자책감이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천국에 갈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본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배움이 부족해도, 재산이 적어도, 건강이 약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구원받아 천국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모두 장수하게 해 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짧은 분들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것처럼 연세 높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런 일인지요. 안도의 마음과 함께 그 분들의 장수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어, 건강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천국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습니다.

셋째는, 아! 인생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가야할 숙명적인 길입니다. 머리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진정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혈떡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더욱이,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과 짝하여 세상만 좇아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가 허허로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나야할 존재임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할 것이고, 좀 더 경건하게 살 것이며, 좀 더 선하게 살 것이며,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입니다만, 다시 음미해 보았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과연 나는 지금 목사로서, 혹은 한 인생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 기도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박재홍 목사 (호남특별연회 장선교회 / 이단대책분과 위원)

벤엘을 찾지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 5:4~15

참조: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제7조

1. 오늘날 종교학자들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지만 세계의 모든 종교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등종교일수록 신의 뜻이 중요하고, 신의 뜻을 따르려고 회개하며 자신을 바꿉니다. 반면 하등종교인 미신과 무속은 내 뜻을 이루려고 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회개보다는 부적을 간직하고, 손바닥에 글자를 새기거나 합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곧 기독교를 하등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2세 시절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 경제도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가 바로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풍요롭지만 부유층의 타락과 부패로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부유층은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따로 두고, 상아침대에 상아장신구 등을 걸치고 매일같이 연회를 즐긴 반면 농민들은 거둬진 정복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소출이 없어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온 가족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으로 규정하시며 해결방식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4,5)

3. 벤엘, 길갈, 브엘세바는 모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중요한 성소입니다. 북이스라엘 건국 당시, 건국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순례를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있던 길갈과 벤엘 성소에 ‘보이는 하나님’(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벤엘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길갈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므로 찾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나중에는 벤아웬(‘허무의 집’ 호 4:15)으로 불립니다. 벤아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에 사로잡혀 끝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성소 벤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벤엘을 찾지 말고, 길갈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4,6,8) 벤엘, 길갈, 브엘세바,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은 귀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찾아다닌다면서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며,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바라고 나아간다면, 결국 패망이 삶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

을 구하고...선을 사랑하며...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14,15)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벤엘을 벤엘답게, 길갈을 길갈답게, 브엘세바를 브엘세바답게 회복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금송아지를 좇아다니는 우상숭배를 범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김종구 목사(서울남연회 세신교회 / 이단대책분과 위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마24:23~26; 7:15~19

■ 찬송 :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단이란 기독교인 행세하며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부인하거나,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성경, 구원론, 기독교, 성령론, 종말론 등을 잘못 해석하여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입니다. 한국에 이단과 유사기독교 사이비 단체가 200여개에 이르며, 신도수가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포교하여,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지거나 병들게 하고 있어,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단경계주간을 맞이하여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들에게 교인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1. 이단들은 지구의 종말을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을 말한다.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재산헌납, 직장포기 등을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10월초 등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으나 거짓이었었고, 동방교회의 노광공은 1965년 8월 15일, 장막성전은 1969년 11월 1일, 일월산기도원은 1971년 8월 15일, 중앙예루살렘교회 심정교회 김준건 임순옥은 1975년 8월, 영생교는 1990년,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1988년, 1999년, 2012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였으나 거짓이었습니다. 50개 이상의 이단들이 엉터리 종말을 말했습니다. 마24:36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예언하는 거짓예언자들에게 유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이단들은 교주라는 인물이 있다. 교주를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인식하여, 교주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하고 추종하며, 철저히 순종하도록 교육시킵니다. 교주를 재림주로 섬기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천부교(구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어린종이라 불린 유재열을 재림주로 여깁니다. 마24:26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7:15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하셨습니다.

3. 이단들은 성경 외에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물몬교 물몬경, 통일교 원리강론, 엘리야복음선교원 십계천국, 신천지 이만희 등은 계시록의 실상 등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가지고 성경처럼 추종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교주들의 주장을 편집한 내용이며 이들은 이 책들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이단들은 자신들이 있는 장소가 예수의 재림장소라고 주장하여, 집단촌을 이루고 그곳이 지상천국이라 말하여 추종자들을 모이게 한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들의 신도가 144,000명에 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주장하며, 김풍일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이단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특별성령체험을 주장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특별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홍혜선 전도사는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30분 한국전쟁설을 예언한 대표적인 거짓 예언이며 이로 인해 교인들이 미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계시는 대부분은 주관적인 환상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체험은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귀중한 것이나, 그러나 성령체험을 통한 가짜가 너무 많고 성령의 은사를 잘 못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여야 합니다.

6. 이단들은 인류 역사를 마귀와 하나님의 능력의 대결구도로 해석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신사도운동이 대표적으로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기동은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로 보았으며,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는 세상을 영적도해를 통해 분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 하므로 땅 밟기 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7. 이단들은 기존교회를 비난하고 기존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다. 기존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구원의 경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런 경험이 없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교회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 이단들은 기존교회의 성도들에 비해 헌신과 사랑과 열심히 있다. 이단에 접하거나 빠진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깨닫기도 전에 이단들의 조직적인 사랑과 친근감, 접근성, 관계성에 빠져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지나친 사랑과 친절로 다가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단에 현혹되면 물질적인 헌신을 하도록 유도 받게 되고 결국은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파괴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이단들은 일상과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고 성경공부와 전도에 몰입한다. 이단에 빠지면 젊은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주부들은 가정생활을 제쳐놓고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그것도 모자라 판단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주부들은 가정을 버리고 이혼하고, 부모를 고소하면서 까지도 선교단체나 전도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위와 같은 대동소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들의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기독교적이며,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며, 성도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믿음을 강조하여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단에 빠져 영육 간에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는 사전에 경계하고 예방 교육하여야 할 것이며,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측은 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 기도 : 이 땅에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이단들이 속히 퇴출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 이인구 목사 (중부연회 십정중부교회 / 이단대책분과 위원)

이단 분별 주요 3교리

마태복음 16:13-17

■ 찬송: 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단사역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국내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이단 단체가 있으며 그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이단의 주요 포섭대상이 일반 불신자들이 아닌 기존의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단의 포섭과정에는 대개 2가지의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있으며 둘째는 성경을 그들만의 체계적인 교리로 설명하는 것에 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준 것과 함께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주며 나름대로 체계적인 설명을 더해줌으로 기존의 교인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난감함과 들어보니 그럴듯한 성경의 체계적인 교육은 쉽사리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사람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단들이 최종적으로 속이려 하는 기존 교회의 핵심이 되는 구원교리만큼은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성경에서 나타내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교회의 구원교리에 관하여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첫째,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교리이다. 이는 신론(神論)에 관한 것으로 핵심은 하나님이 세 분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 됨은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같으시고(빌 2:6), 하나님으로서 뜻이 같으시며(고전 2:10) 또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수준이 같다는 것(요 14:10)을 뜻한다. 이단의 경우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게 하여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하거나 성령을 천사의 존재로 말하기도 하며 그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를 얹어놓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양성론(兩性論, Divineness and Humanness)에 관한 교리이다. 앞서 삼위일체론이 정립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필요한 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없다는 것이다.(엡 2:8) 이로써 모든 인간은 죄인 됨과 이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요 14:6)

셋째,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이다.(롬 3:23~24)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단의 경우 이를 부정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인간 행위에 대한

가능성과 필연성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다.

이로써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죄인
이므로 인간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 질 수 없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은혜의
도구로서 마땅히 사용하면서 간구해야하지만 그것이 결코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 어떠한
공로(功勞, merit)나 그 자체로서 능력(能力, power)이 될 수는 없다.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생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여기서 행위로 정의
되는 은혜의 수단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는 이들의 마땅
히 할 바가 된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은 이를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 기도 :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신 바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날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
게 하여 주옵소서.

■ 김현식 목사(남부연회 샘물교회 / 이단대책분과 서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분별하자

유다서 1:3-4

■ 찬송: 360(통402) - 행군 나팔 소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끊임없이 출몰하여 교회를 위협했고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온파(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이단), 영지주의(물질세계는 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주장하며 구원을 위해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이단사상), 마르시온니즘(극단적 바울추종파로 영지주의적 가현설 주장), 몬타니즘(극단적 종말론과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이단사상) 등과 같은 이단들의 등장으로 교회는 이들과 맞서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며 거짓과 교묘히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은 지난 2천년의 교회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천부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 구원파, JSM 등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 등장하였고 지금도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외부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는 이단들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이단사상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사상들은 교회 내부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그 악한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에 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도 교회 내부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활동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가만이 들어온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내부에서 암약하는 본문 말씀에 언급된 특징을 가진 ‘가만이 들어온 자들’과 같은 대표적 이단사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타락을 옹호하는 퀴어신학입니다. ‘괴상한’, ‘기묘한’이란 뜻인 퀴어(Queer)라는 단어에서 이미 풍기듯이 소위 이 퀴어신학은 성경을 괴상한 정도가 아니라 파괴적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 퀴어신학자로 미연합감리교회 목회자요 시카고신학교 교수였던 테드 제닝스(Ted Jennings, 1942-2020)는 예수님을 동성애자였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감히 입을 수조차 없는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 내에 이런 퀴어신학을 추종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 오늘날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로 퀴어신학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인 모습을 버리고 다른 종교들도 인정하고 교류하며 종교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자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행 4:12). 그런데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간의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며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언급된 홀로 하나이신 주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시대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만히 교회내부에 침투하여 정통의 옷을 입고는 실제로는 반성경적이고 패역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오늘날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분별하여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주님, 저희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같은 이들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 내에서는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한철희 목사 (총청연회 서천제일교회 / 이단대책분과 위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시편 2:1-6

찬송 :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시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마 28:18)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 2: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열방의 왕들이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세상의 왕들이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자신들의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 분노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 2: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시 2: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왕들을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시 2: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시 2: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시편 기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으로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 2: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억압하는 권세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 이성민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이단대책분과 위원)

■ 2021년 이단경계주간 공동예배문 ■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전 주	반 주 자
* 입례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으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온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경배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봉헌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 이단경계주간 공동예배 설교문 ■

진리의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감리교회

딤후 1: 3~7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이단대책주일을 맞이하여 말은바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상고할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부활의 증인들로 삶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배교의 악한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이단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1.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는 기독교 신앙에 해를 끼치고 변론과 논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가 태어난 초대교회에 이방 종교들이 많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비슷하며, 부도덕하고 세상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다르고 대립되는 세계관,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훈들에 흥미를 느끼고 현혹되어 빠져드는 것은 신도들에게 큰 시험과 타락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족보는 또한 인간적인 얽매임과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도 족보를 따져보자는 것은 가문이 어떻고 하는 등, 세상 속에서의 입지와 출세, 영예 등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 삶의 양식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얽매이는 것은 성도의 삶에 큰 방해와 장애물 밖에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들에서 자유하며,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며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교훈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굴레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다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이단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교훈, 이단이 크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으로서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단지 영적인 환상과 감각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로의 도피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영지주의 같은 허황된 교묘한 풍조들이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명백한 이단뿐만 아니라 그럴 듯한 위장을 쓰고 유혹하고 속이는 사상들과 이념들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굳게 지키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

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무장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바른 지도를 받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열광과 광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건전한 영성훈련은 아주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에 따른 엄격하고 수준 높은 영성의 훈련과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모델을 통해 교회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훈련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고 헛된 이단을 막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지니고 붙들 때, 이단을 거슬러 이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준을 가져다줍니다. 양심에 맞지 않는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분별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 즉 거짓 없는 믿음과 그 결과로 맺어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그와 같은 굳건한 토대로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요 성화의 열매를 맺는 보화인 것입니다.

3.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큰 재해와 고난을 온 인류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도덕적 질병은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세상을 어둡게 하고 고통과 파멸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멸망과 징벌에서 자유를 주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들, 이단의 속임수, 거짓 이론들에서 우리를 지켜 교회 안에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 영생의 진리에 거하는 성도들이 감리교회마다 넘치시길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모든 감리교회 성도님들께 기원합니다.

■ 이후정 목사 (감신대학교 총장 / 신학정책분과 위원장)

이단 대응은 이렇게

1. 이단들의 무분별한 교회 접근에 관한 목회자로서의 대응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이단들의 접근은 여러 각도로 시도되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비대면으로 인하여 온라인 포교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응방법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① 교회에 홍보물을 두고 가거나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홍보물에 대한 우편배송의 경우 ‘신천지’에서 보낸 것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버리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식으로 「반송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반송처리는 이단들에게 거부 의사 전달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② 문화 행사 또는 기독교 행사인양 위장하여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초청

‘구원파’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편물만이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료콘서트, 음악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등이 그것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주관사,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협조기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일 이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교인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주의를 당부해주어야 한다.

③ 교회에 직접 찾아와 자신들의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을 시도

소속단체가 어디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근래에는 ‘구원파’가 교회 목회자를 찾아와 초청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우편물을 통해서는 ‘통일교’가 자신들의 단체를 위장하여 목회자 초청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청하려는 소속 단체의 이름을 메모해두었다가 인터넷 검색에 「소속단체 이름과 이단」으로 검색해보면 쉽게 이단 단체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단으로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거절의사를 밝히고 다시 방문할 경우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다. 분명한 거부 의사는 상대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한다.

④ 교회를 비방하는 전단지 혹은 스티커, 불법 현수막을 부착

채증(採證-증거수집)자료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불법 현수막의 경우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게시한 곳으로 1차 경고, 2차 경고 후 벌금 처리되므로 이단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된다. 이단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오히려 이들을 대범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주는 것이 좋다.

⑤ 검증되지 않은 기독교 서적 등을 교회로 발송

일 년에 몇 차례 교회로 배송되는 일이다. 이들 가운데는 대형 이단들의 아류들이 자주 등장하거나 혹은 자의적 신학 해석에 심취하여 만들어진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현혹

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증되지 않은 서적의 유혹은 기존의 신학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송처리 하거나 이단연구 자료용으로 두거나 그것도 아니면 폐기 처리하는 것이 좋다.

2. 이단들의 무분별한 교회 접근에 관한 행정 및 법적 대응

① 교회 앞 1인 시위할 경우

- 교회 출입구에 이단출입 금지 스티커(관계법령 표시)를 반드시 부착
- 어떤 이단 단체에서 시위하는지 반드시 확인
- 건물 내부 및 교회부지에 진입하였을 경우 1차 퇴거 통보
- 통보 이후에도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동영상 및 사진으로 현장사진 확보)
- 이단과는 절대 물리적 충돌 및 신체적 접촉 금지
- 법적 대응시 근거자료를 위해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확보

② 교회 앞 2인 이상 및 단체로 시위할 경우

-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 집회신고 여부를 확인
- 집회 신고가 없을 시 정보과 형사에게 현장 출두할 것을 요청
(시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 확보)
- 시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시위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채증(採證, 증거수집)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촬영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단,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얼굴 사진을 게시할 시 초상권 문제가 발생)

③ 교회 안으로 침입할 경우

- 이단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었음을 확인 시켜줌
- 무단 침입은 법적문제가 됨을 알리고 밖으로 나가줄 것을 알림
- 거부할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현장 상황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자료 확보

④ 교회 목회자를 찾아올 경우

- 어느 이단 단체에서 왔는지 소속 단체명 및 신원 확인
- 정면 대응 및 논쟁을 피하고 돌아갈 것을 알림
- 전화 혹은 우편으로 만남을 시도해도 거절의사를 분명히 알림

⑤ 이단에 빠진 성도 및 가족 구성원이 확인될 경우

- 전문 이단상담소와 연결되기 전까지 표현하지 말고 절대 드러내지 않기
- 이단에 빠진 이들이 치유되기 전까지 신상정보 공개 금지
- 이단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전문 상담소에서 반드시 반증교육 이수 확인
- 이단맵닷컴(www.2danmap.com) 접속, '3번-이단상담'으로 전국 이단상담소와 연결

■ 김현식 목사 (남부연회 샘물교회 / 이단대책분과 서기)

신천지의 접근 방법

- 1) 설문지(양케이트) 및 설문조사를 하며 종교, 학교,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조사-알바모집, 도형상담 심리상담, 봉사단체 참여유도
 - 2) 교육 세미나 권유 및 모략 전도, 우연 가장 37가지 상황 연출
 - 3) 문화강좌 권유 (구청, 동사무소, 대형 할인매장, 문화센터)
 - 4) 신학대학교에서 추수꾼이 가명을 사용하여 침투기성교회 교역자로 들어와 심방, 정보유출, 분란을 일으킴)
 - 5) 기도원 및 교회공부방에 등록 후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교인에게 접근
 - 6)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칭을 사용 (열린성경교육원, 두란노선교회, 총회신학원, 참사랑선교회, 평신도교육원, 기독교신학원, 로고스성경연구원, 바이블아카데미, 엠마오선교회)
 - 7) 교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에 침투하여 친분관계를 맺고 성경읽기와 묵상, 큐티모임, 중보기도 모임 등을 제안
 - 8) 인터넷 활동을 통한 카페운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
 - 9) 꿈이나 환상 예언이야기에 민감한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미혹
 - 10) 가정 방문, 가게 방문 친분 형성 후 성경공부로 유도
 - 11)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안부를 묻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만남 지속 후 성경공부 유도
 - 12) 전화방을 개설하여 운영, 핸드폰이나 집전화로 성경공부 또는 말씀공부 제안
 - 13) 전도 당해서 침투 후 목회자와 친분 형성 후 교회 분란조장
- * 교회 밖 성경공부 큐티모임 중보기도모임은 이단이나 신천지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당 목회자와 상의 후 결정

■ 이진우 장로 (동부연회 원주개운교회 / 이단대책분과 위원)